

해바라기 - 5566여성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인터뷰

해바라기를 마친 모녀 의 편지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같아요’

엄마,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시는 엄마.

이번 3일간의 집회 중에 매일 2층에 앉아 있던 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찾아내시고, 손을 흔들어주시던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는 어릴 때 나를 키워주시던 때와 하나도 다름없으시구나 했어요. 아침마다 찬밥 먹이지 않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궁이 불에 밥을 지으시고, 버스에 먼저 타게 밀어주시고, 가방 넣어주시던 엄마. 또 학교에서 유별난 행동을 하다 선생님께 불려가서 엄마를 곤욕 치르게 했던 딸에게 “넌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시며 끝까지 당신 딸을 편들어주시던 때와 변함이 없으셨답니다.

사실 이번 집회에 엄마를 초청하면서 엄마는 성당을 다니시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2일째 날은 돌아가신 아빠의 기일인데, 늘 해오던 전통대로 그 전날 밤 제사 드려야 하신다고, 그 준비 때문에라도 못 오신다고 하실 텐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역시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올케는 다리 수술을 해서 목발을 짚고 있고, 조카는 입원하는 등.. 덧붙여지는 상황들이 처음에는 무척 낙심이 되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기게 만들었고, 결국 엄마는 오시게 되었어요.

하루 하루 지나는 동안 점점 더 기뻐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또 둘째 날에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집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폐지하고 가족이 둘러 앉아 아빠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벅찬 감동을 맛보았어요. 그래도 가장 큰 수확은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신 것을 확신한 거랍니다.

매일 댁으로 모시러 갈 때마다 미리 차려 입으시고 나와서 기다리시던 모습. 그날의 프로그램을 기대하시고, 운전하는 딸을 위해 잊지 않고 음료수 한 병까지 챙겨 드신 모습. 그리고, 바래다 드리고 나올 때 자동차가 아파트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시던 모습들은 해바라기가 끝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는 영상으로 남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 엄마에게 드립니다.

2003년 6월 19일 딸 현주 드림

‘너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잊지 않으나’

딸 현주에게.

네가 벌써 41세라니 세월도 참 빠르구나.

한 가정의 주부로, 두 아이 아들 딸 엄마로 성장해 있으니 흐뭇하다.

엄마는 너를 아직도 철부지로만 여겼는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 고마움을 전하는 너의 얼굴이 무대 전체로 영상 가득히 퍼져 나올 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였는지.

딸아 사랑한다.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네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낀다.

네 어린 시절 참 예뻐지. 공부도 1등이고, 애교도 1등이고.

그렇지만 엄마는 늘 한 구석이 서운하단다. 너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한다. 너는 엄마 속을 썩힌 거 없어. 다 잘했어. 아이구~ 기특한 내 딸.

해바라기 드라마에 초대해 주어서 고맙다.

구수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도 감동적이었다.

엄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또 한번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사흘동안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단다.

딸아 고맙다.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해 주어서.

온누리교회 고마움 항상 기억하마.

기도하며 건강하게 지내기 바란다.

2003년 6월 19일 엄마

<< 해바라기에 함께한 어머니들 >>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동서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와 보면 좋을 것이라는 동서의 말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냥 한 번 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참가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불편하다는 목사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초대해 준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기쁨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 차명수 님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팔이 불편한 상황인데 셋째 아들이 초대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들 둘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셋째아들은 신학공부를 하고 있지만 남편은 불교신자여서 교회에 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아들도 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해바라기’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 진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편이 언짢아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집회 내내 ‘이 좋은 것을 남편과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남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 김복선

“주님 사랑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두 딸의 꾸준한 기도로 집회에 참석하려고 먼 진해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생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도 미션스쿨을 다니며 채플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보호와 계획 아래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자식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생을 자식과 저 자신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 정숙희 님

“딸과 사위의 기도로 주님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딸과 사위가 교회에 나오자고 했지만 직장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일요일도 아닌 평일에 집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서 그런지 집회 내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말씀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정영숙씨가 어머니를 말할 때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섬기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박희숙 님

* 출처 : 온누리신문